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20, Vol. 39, No. 3, 359-383

<http://dx.doi.org/10.22257/kjp.2020.9.39.3.359>

한국형 다차원 성격검사(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 BDPI)의 개발과 타당화: 일반 성격과 부적응 성격의 통합*

김 명 기¹⁾ 이 상 준²⁾ 한 여 울³⁾ 박 두 진[†] 최 기 흥[‡] 서 동 기^{‡‡}

본 연구는 Lee 등(2019)이 실시한 한국형 다차원 성격검사(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 BDPI)의 타당화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총 3단계에 걸친 조사로 전국 성인 1059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BDPI 중 일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다섯 개의 요인과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하는 다섯 개의 요인 간의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은 서로 독립적인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의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의 5요인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은 수용 가능한 모형 합치도 지수를 보였다. Big Five Inventory(BFI) 및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PID-5-SF)과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일반성격요인은 BFI와 적절하게 수렴 및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적응성격요인은 PID-5-SF와 수렴되었으나 변별은 잘 되지 않았다. BDPI를 독립변수로, SAPAS-SR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BDPI는 양호한 예측 타당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내용을 논의에 제시하였다.

주요어 : BDPI, 다차원 성격검사, 일반 성격, 부적응 성격, 척도 개발, 타당화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8S1A5A2A03030006).

1)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E-mail: kmk930830@naver.com

2) 피비씨지(Psychology based Consulting Group), 선임 연구원, E-mail: lsjpsyche@pbcgresearch.com

3)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박사과정생, E-mail: olivebird352@korea.ac.kr

† 교신저자: 피비씨지(Psychology based Consulting Group), 대표, 서울 중구 장충단로 8길 12, E-mail: doopark@pbcgresearch.com

‡ 교신저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E-mail: kchoi1@korea.ac.kr

‡‡ 교신저자: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및 응용심리연구소, 조교수
Tel: 033-248-1727, E-mail: wmotive@hallym.ac.kr

지난 세기 동안 일반 성격과 부적응 성격의 측정 및 평가는 범주적 접근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Allport & Odbert, 1936; Cattell, 1943; Morey, 1988).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또한 범주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진단체계를 갖추고 병리적 성격특질과 일반 성격특질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APA, 1980; 1987; 1994; 2000). 그러나 성격장애의 존재 유무 평가에 중점을 두는 진단 방식은 성격장애 간 공병률 증가, 동일한 성격장애 내에서 이질성의 존재 등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나 예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Cloninger, 2000; Westen & Shedler, 1999; Widiger & Trull, 2007). 이로 인해 성격에 대한 대안적 모형의 필요성과 더불어 정상 성격과 이상 성격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다수의 연구에서는 성격의 일반적 특질과 부적응적 특질이 서로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기 보다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는 차원에 속한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성격장애를 일반 성격구조 차원에 위치한 부적응적 특성의 조합으로 개념화하였다(Krueger & Tackett, 2003; Nestadt et al., 2008; Widiger & Simonsen, 2005). 이러한 연구 흐름은 DSM-5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 APA, 2013)의 개정 과정에 주요하게 반영되었고, 개정판에서는 성격장애를 범주적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더불어 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Zachar et al., 2016). 최근의 연구 결과들 또한 성격장애에 대한 차원적 모형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Bach et al., 2015; Clark, 2007; Morey et al., 2014; Trull & Durrett, 2005).

성격을 몇 가지 차원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소개되면서, 일반 성격 차원(예, 5요인 모형)과 부적응적 성격 차원(예, 부적응 5요인 모형)이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었지만 (Krueger et al., 2012; Lee & Ashton, 2004; McCrae & John, 1992), 차원적 접근에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격 차원과 부적응적 성격 차원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Ferguson et al., 2014; Oluf & Furnham, 2015; Smith et al., 2018).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는 통상적으로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 Costa & McCrae, 1992),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Cloninger et al., 1994)와 같이 일반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와 DSM-5 성격질문지(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Krueger et al., 2012), 성격병리 5요인 척도(Personality Psychopathology-5, PSY-5; Harkness & McNulty, 1994)와 같이 부적응적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상 성격과 이상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를 일반군과 임상군에게 나누어 실시하고 별도의 장면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성격의 단편적인 측면만을 평가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부적응 성격특성 중 하나인 '대인회피성'의 경우 일반 성격특성 중 외향성-내향성 차원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외향성이 높으면서 대인회피성이 높은 사람과 내향성이 높으면서 대인회피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 성격특성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적응적 성격특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아 성장이나 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Gleason et al., 2014; Judge et al., 2002; Piedmont et al., 2009). 따라서 일반 성격

특성과 부적응적 성격특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성격의 다각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에 Choi 등(2018)은 임상심리전문가, 심리 측정전문가 및 기업컨설팅전문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일반 성격특성과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성격평가 도구인 한국형 다차원 성격검사(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 BDPI)를 개발하였다. BDPI를 개발하면서 아래에 기술한 기존 성격검사가 지니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존의 성격검사들은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된 검사들을 단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어 한국의 문화나 언어적 측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Yoo et al., 2004). 이러한 검사들은 원문 척도가 한국인 고유의 성격특성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Kim et al., 2011). 국내에서 NEO-PI-R, PID-5를 비롯한 검사들의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영문판 척도와 한국판 척도의 요인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회문화적 차이가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11; Min & Park, 2000). 둘째,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성격검사의 타당화 연구는 그 대상이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직장인에 국한되어 그 결과를 폭넓은 연령대나 다양한 평가 장면에서 적용하는데 제한적이다(Ahn & Chae, 1997; Lee, 1994, 1995). 셋째, 기존의 성격검사는 문항 수가 너무 많아 검사를 실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다양한 검사장면에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즉, 검사의 경제성-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Jung et al., 2011).

Choi 등(2018)이 BDPI를 개발한 후, Lee 등(2019)은 BDPI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Lee 등(2019)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BDPI를 타당화 하였다. 그들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234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120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예비문항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101개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후, 600명의 피검자에게 본조사를 실시하여 예비조사 분석에서 유지된 기존의 133문항과 추가로 개발된 47문항, 총 180문항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65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165개의 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과 구성개념 타당도 및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BDPI를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3차 조사연구를 통해 Lee 등(2019)의 연구에서 확인된 BDPI의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Lee 등(2019)의 연구에서 실시한 BDPI의 구성개념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내적 일관성,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BDPI의 예측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BDPI 점수가 성격장애를 잘 예측하고 분류하는지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3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단계 조사에서는 BDPI에 대한 1307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준거관련 척도들에 대한 데이터는 문항 수의 과다로 인한 피검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2단계 조사에서 수집했다.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가 완료되고 이틀 후에 실시되었으며, 총 1066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단계 조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BDPI에 대한 데이터를 재수집하였다. 3단계 조사에서는 1단계 조사

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무선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였고, 187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실제 분석에는 불성실 응답이 예상되는 7명을 제외한 1059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1059명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지역, 결혼여부, 교육연한, 월 평균 가구소득, 직업 정보 등 추가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한국형 다차원 성격검사(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 BDPI)

BDPI는 Choi 등(2018)이 개발하고 Lee 등(2019)이 타당화한 성격검사로 일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일반성격 5요인과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하는 부적응성격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성격요인은 5개 요인(외향성-내향성, 수용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16개 하위요인, 총 80개 문항으로 개인의 일반 성격특성을 측정한다. 부적응성격요인은 5개 요인(대인회피성, 자기중심성, 조절취약성, 정신증성, 부정정서성), 17개 하위요인, 총 85개 문항으로 개인의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한다. 개인의 문항반응은 4점 Likert 척도(1 = '전혀 아니다', 2 = '약간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및 연령)

특성	빈도(비율)
성별	
남자	536(50.6 %)
여자	532(49.4 %)
연령	
20대	356(33.6 %)
30대	350(33.1 %)
40대	353(33.3 %)
성별*연령	
20대 남자	178(16.8 %)
30대 남자	179(16.9 %)
40대 남자	179(16.9 %)
20대 여자	178(16.8 %)
30대 여자	171(16.1 %)
40대 여자	174(16.4 %)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BFI)

BFI는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성격 검사이다. 간편형 한국어 BFI는 Kim 등(2011)이 기존 BFI의 44개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 당 3개 문항, 총 15문항으로 축약한 단축형 검사이다. BFI는 성격 5요인 이론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5개의 기본 성격 요인(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을 측정한다. 문항반응양식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 BFI는 외향성 = .656, 친화성 = .704, 성실성 = .747, 개방성 = .814, 신경증 = .832의 Cronbach's α 를 나타냈다.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PID-5-SF)

한국판 PID-5는 DSM-5 Section III에서 새롭게 제안된 PID-5(Krueger et al., 2012)를 Shin과 Hwang(2016)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검사이다. 이후 Maples 등(2015)은 PID-5를 단축하여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 PID-5-SF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in과 Hwang(2016)이 타당화한 한국판 PID-5 문항 중에 Maples 등(2015)이 제시한 단축형에 사용된 100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PID-5-SF는 성격의 병리적 측면, 다시 말해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이는 5개 요인(부정정서성, 애착상실, 적대성, 탈억제, 정신병적경향성), 2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전혀 아니다', 1='약간 아니다', 2='약간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PID-5-SF의 Cronbach's α 는 애착상실 = .916, 적대성 = .912, 탈억제 = .915, 정신병적경향성 = .910, 부정정서성 = .942로 나타났다.

한국판 축약표준성격평가-자기보고형(Self-Report Standardized Assessment of Personality-Abbreviated Scale: SAPAS-SR)

SAPAS-SR은 면담 형식으로 구성된 기존의

축약표준성격평가(SAPAS)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Choi 등(2015)이 한국어 번안 및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분법적 반응양식(1 = 예, 0 = 아니오)을 사용한다. SAPAS-SR은 성격장애의 유무를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검사이다. 총점은 8점이며 Choi 등(2015)의 연구에서 절단점은 4점, 내적일관성 지수는 .79로 확인되었다. SAPAS-SR의 총점이 4점 이상일 경우 성격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절단점을 기준으로 성격장애에 대한 분류정확성은 67.2%로 확인되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HIRB-2018-070-1-C),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설문업체에 위탁되어 실시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연구 참여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BDPI 문항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으며, 두 번째 조사에서는 준거관련 검사들의 문항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첫 번째 조사(BDPI)를 수행한 피검자 중 일부 피검자의 반응을 재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BDPI의 타당화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타당도 검증에 앞서 BDPI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와 검사-재검사(test-retest)의 상관 분석하였다.

BDPI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우선 일반성격 특성과 부적응성격특성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

이라는 BDPI의 이론적 배경을 검증하였다. 그 후, BDPI의 구성개념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묶음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검사 개발이나 타당화인 경우에는 문항묶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Lee & Kim, 2016).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Lee 등(2019)이 예비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한 BDPI 검사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준거 검사들과의 상관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항묶음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Little et al., 2013; Matsunaga, 2008). 특히 문항들의 단일 차원을 가정한 하위요인별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요인구조를 크게 왜곡하거나 척도의 요인들이 불명확해질 우려는 없다(Bandalos & Finney, 2001). 동일한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평균을 통해 하위요인별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일반성격요인은 16개의 측정변수를, 부적응성격요인은 17개의 측정변수를 갖게 된다. 문항들의 평균을 통해 문항묶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측정변수들은 순서형 변수가 아닌 연속형 변수로 인식된다. 연속형 측정변수의 분석을 위해 Mplus에서 제공하는 MLR(robust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Kline, 2016).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묶음 수준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예비연구에서 확인된 BDPI의 요인구조가 본 연구의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 BDPI의 요인과 BFI 및 PID-5-SF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BDPI 점수가 SAPAS-SR 점수를 잘 예측

하는지를 확인하여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이론적인 모형의 대안적 모형을 찾고 모형 합치도를 개선하기 위해,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해주는 ESEM(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parouhov & Muthén, 2009)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SEM은 공통분산과 관계 없이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오차 간 상관으로 표시하고 추정 및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측정오차 간 상관을 0으로 고정하는 것은 모형 식별을 위한 하나의 제약으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이 척도의 구조를 탐색할 때 반드시 가정하는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척도의 실제 모형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Lee et al., 2016).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할 때 측정오차 간 상관이 없다는 이전의 강한 가정을 완화하면서 현실적이고 해석 가능한 구조를 산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제약 목표회전(Browne, 1972)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 탐색에 있어서 연구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개입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SPSS 25(Version 25; IBM Corp., 2017)와 Mplus 8(Muthén & Muthén, 1998-2017)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검사의 신뢰도

일반성격요인 전체 문항의 내적일관성 지수(Cronbach's α)는 .924이었고 일반성격요인 5개 요인인 외향성-내향성은 .922, 수용성은 .714, 성실성은 .868, 개방성은 .858, 정서안정성은

.827의 내적일관성 지수를 보였다. 16개 하위 요인의 내적일관성 지수의 범위는 .608(신뢰)에서 .879(사교)이었고 평균은 .752이었다. 부적응성격요인에 대한 전체 문항의 내적일관성 지수는 .960이었고, 부적응성격요인의 5개 요인의 내적일관성 지수는 대인회피성이 .871, 자기중심성이 .896, 조절취약성이 .873, 정신증

성은 .848, 부정정서성이 .894이었다. 17개 하위요인의 내적일관성 지수의 범위는 .874(기이)에서 .684(경직)이었고 평균은 .796이었다.

일반성격요인 전체 문항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1이었고 5개 요인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외향성-내향성이 .851, 수용성이 .518, 성실성 이 .675, 개방성이 .773, 정서안정

표 2. BDPI의 내적일관성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일반성격요인	Cronbach's α	검사-재검사	부적응성격요인	Cronbach's α	검사-재검사
전체문항	.924	.731	전체문항	.960	.707
외향-내향성	.922	.851	대인회피성	.871	.684
활력(EB1)	.841	.749	고립(ED1)	.790	.603
사교(EB2)	.879	.779	무쾌(ED2)	.790	.573
주도(EB3)	.875	.799	의심(ED3)	.844	.718
내향(IN)	.777	.738	자기중심성	.896	.720
수용성	.714	.518	연기(AD1)	.792	.594
신뢰(AB1)	.608	.475	우월(AD2)	.815	.734
관대(AB2)	.614	.521	기만(AD3)	.786	.643
이타(AB3)	.638	.547	냉혹(AD4)	.841	.587
성실성	.868	.675	조절취약성	.873	.662
끈기(CB1)	.779	.615	산만(CD1)	.798	.567
성취(CB2)	.770	.606	충동(CD2)	.757	.558
체계(CB3)	.795	.683	집착(CD3)	.731	.553
개방성	.858	.773	정신증성	.848	.638
심미(OB1)	.798	.704	기이(OD1)	.874	.631
탐구(OB2)	.723	.708	환상(OD2)	.809	.649
체험(OB3)	.798	.793	경직(OD3)	.684	.596
정서안정성	.827	.575	부정정서성	.894	.769
정서수용(NB1)	.624	.528	의존(ND1)	.714	.670
정서표현(NB2)	.706	.503	분노(ND2)	.863	.714
정서인식(NB4)	.788	.508	불안(ND3)	.783	.728
			열등(ND4)	.860	.686

성이 .575이었다. 16개 하위요인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범위는 .503(정서표현)에서 .851(활력)이었다. 부적응성격요인 전체 문항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07이었고 5개 요인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인회피성이 .684, 자기중심성이 .720, 조절취약성이 .662, 정신증상이 .638, 부정정서성이 .769이었다. 17개 하위요인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범위는 .553(집착)에서 .769(불안)이었다. 전체적으로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의 내적일관성 지수는 높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에 BDPI의 요인별 내적일관성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BDPI의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성격을 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모델이 제안된 후, 최근에는 성격장애와 같은 부적응적 성격 특성을 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APA, 2013). 일반 성격의 각 차원은 모두 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장애는 부적응 성격특성의 극단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성격특성 5요인과 부적응 성격특성 5요인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측정하는 영역이 서로 구별된다고 이해하는 모델이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Chatterjee & Hambrick, 2011; Clark, 2007; Le et al., 2011; Ng et al., 2005; Oluf & Furnham, 2015; Wales et al., 2013; Widiger, 1997). BDPI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최근의 경험적 모델을 바탕으로 일반 성격특성과 부적응 위험특성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으로 갖는 2요인 측정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의 요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132$). 따라서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라 가정하고 이후의 타당도 분석은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Lee 등(2019)의 예비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일반성격요인의 80개 문항과 부적응성격요인의 85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2수준 위계적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33개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상위 10개 요인 또한 모형 합치도가 양호한 수준을 보여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9)의 예비연구에서 확인된 요인구조가 본 연구의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문항묶음 수준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형 합치도 지수들인 χ^2 , RMSE, CFI, TLI, SRMR을 통해 모형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08 이하의 RMSEA와 SRMR, .90 이상의 CFI와 TLI를 기준으로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의 수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MacCallum et al., 1996).

일반성격요인에 대한 문항묶음 수준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적 모형 합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chi^2 = 590.336$, $df = 94$, $p = .000$),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은 모두 수용할 만한 수치를 나타냈다(RMSEA = .071(.065 - .076), CFI = .864, TLI = .826, SRMR = .068). 모든 요인 간 상관은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 = .152 \sim .442$). 표 3은 일반성격요인에 대한 문항묶음 수준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이어서 부적응성격요인에 대한 문항묶음 수

표 3. 일반성격요인의 요인모형과 모형 합치도

	χ^2	df	p-value	RMSEA		CFI	TLI	SRMR	
				RMSEA	C.I.				
일반성격	590.366	94	.000	.071	.065	.076	.864	.826	.068
요인	문항묶음	일반성격요인							
		외향-내향성	수용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외향-내향성	활력(EB1)	0.814*							
	사교(EB2)	0.794*							
	주도(EB3)	0.808*							
	내향(IN)	0.484*							
수용성	신뢰(AB1)	0.483*							
	관대(AB2)	0.389*							
	이타(AB3)	0.622*							
성실성	끈기(CB1)				0.694*				
	성취(CB2)				0.749*				
	체계(CB3)				0.649*				
개방성	심미(OB1)					0.590*			
	탐구(OB2)					0.706*			
	체험(OB3)					0.686*			
정서안정성	정서수용(NB1)							0.666*	
	정서표현(NB2)							0.657*	
	정서인식(NB4)							0.680*	
요인간 상관	외향-내향성								
	수용성	0.225*							
	성실성	0.152*	0.353*						
	개방성	0.390*	0.285*	0.280*					
	정서안정성	0.325*	0.442*	0.385*	0.221*				

* : $p < .05$

준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적 모형 합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chi^2 = 1336.529, df = 109, p = .000$), SRMR을 제외한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은 다소 좋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RMSEA = .103(.098 - .108), CFI = .792, TLI = .740, SRMR = .077). 해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현실적이고 해석 가능한 구조를 산출하기 위 고정되어있는 측정오차 간 상관을 자유모수로

표 4. 부적응성격의 요인모형과 모형 합치도(목표회전 적용)

	χ^2	df	p-value	RMSEA		CFI	TLI	SRMR	
				RMSEA	C.I.				
부적응성격	812.640	100	.000	.082	.077 .087	.879	.835	.065	
요인	문항묶음	부적응성격요인							
		대인회피성	자기중심성	조절취약성	정신증성	부정정서성			
대인회피성	고립(ED1)	0.578*							
	무쾌(ED2)	0.730*							
	의심(ED3)	0.616*							
자기중심성	연기(AD1)		0.635*						
	우월(AD2)		0.518*						
	기만(AD3)		0.648*						
	냉혹(AD4)		0.787*						
조절취약성	산만(CD1)			0.740*					
	충동(CD2)			0.782*					
	집착(CD3)			0.692*					
정신증성	기이(OD1)				0.712*				
	환상(OD2)				0.716*				
	경직(OD3)				0.434*				
부정정서성	의존(ND1)						0.542*		
	분노(ND2)						0.712*		
	불안(ND3)						0.664*		
	열등(ND4)						0.716*		
측정오차 간 상관	ED1-AD1	ED2-ND4	ED3-ND3	AD1-AD2	AD2-ND4	AD4-ND3	AD4-ND4	CD2-ND2	CD3-ND3
	-0.356*	0.335*	0.258*	0.266*	-0.297*	-0.252*	0.195*	0.339*	0.260*
요인 간 상관		대인회피성	자기중심성	조절취약성	정신증성	부정정서성			
	대인회피성								
	자기중심성	0.409*							
	조절취약성	0.555*	0.494*						
	정신증성	0.645*	0.611*	0.679*					
	부정정서성	0.696*	0.402*	0.755*	0.688*				

* : $p < .05$

추정해주었을 때 감소하는 χ^2 인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와 상위요인은 다르지만 연관성 있는 하위요인들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하여 9개의 측정오차 간 상관(ED1-AD1, ED2-ND4, ED3-ND3, AD1-AD2, AD2-ND4, AD4-ND3, AD4-ND4, CD2-ND2, CD3-ND3)을 허용해주었다. 그 결과,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이 크게 개선되어 수용 가능한 수치를 나타냈다(RMSEA = .082(.077 - .087), CFI = .879, TLI = .835, SRMR = .065). 요인 간 상관들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 = .409 \sim .755$). 표 4는 부적응 성격요인의 목표회전 요인분석 결과이다.

BDPI의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간편형 한국어 BFI는 성격 5요인에 기반하여 제작된 검사로 일반 성격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PID-5-SF)은 병리적인 성격 측면 즉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검사를 통해 일반 성격특성과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하는 BDPI의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PID-5-SF는 100개의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따라서 Mplus 8의 WLSMV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80개 문항의 일반성격요인 또는 85개 문항의 부적응성격요인과 함께 모수를 추정할 경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 BDPI와 PID-5-SF 모두 하위요인 단위로 문항묶음을 하여 Mplus 8의 MLR 추정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문항묶음을 사용하여 분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Little et al.,

2013; Matsunaga, 2008).

간편형 한국어 BFI와의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간편형 한국어 BFI의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준거 검사 자체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검사는 준거 검사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전에 준거 검사에 대한 모형 검증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3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검증적 모형 합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 = 528.185, df = 80, p = .000$).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은 수용할 만한 수치를 보였다(RMSEA = .073(.067 - .079), CFI = .889, TLI = .854, WRMR = .074). 5개 요인들 간의 상관은 -.099에서 .684까지의 상관을 보였다. 신경증 요인의 경우,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r = -.099 \sim -.266$). 일반성격요인과 BFI를 요인으로 하는 2요인 측정모형을 통해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일반성격요인과 BF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 = .658, p = .000$). 일반성격요인의 5요인과 BFI의 5요인 간의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정서안정성을 제외한 일반성격요인의 4개 요인들은 해당하는 BFI의 요인들과 중간 또는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 = .563 \sim .814$). 정서안정성은 BFI 요인들 중 관련된 요인인 신경증이 부적 방향이기 때문에 부적상관을 나타냈다($r = -.372, p = .000$). 표 5에 일반성격요인의 5요인과 BFI의 5요인 간의 요인 간 상관을 제시하였다.

표 5. 일반성격요인의 5요인과 BFI의 5요인 간의 요인 간 상관

	BFI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
일반성격요인					
외향-내향성	0.814*	0.217*	0.218*	0.473*	-0.366*
수용성	0.142*	0.587*	0.294*	0.260*	-0.239*
성실성	0.094*	0.288*	0.638*	0.163*	-0.046
개방성	0.259*	0.202*	0.205*	0.563*	-0.003
정서안정성	0.352*	0.355*	0.423*	0.243*	-0.372*

* : $p < .05$

음영처리 : 일반성격요인과 BFI의 대응되는 요인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PID-5-SF)의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에 앞서 PID-5-SF도 기준에 알려진 5요인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 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3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검정적 모형 합치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chi^2 = 2864.487, df = 265, p = .000$),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은 모두 수용할만한 수치를 나타냈다(RMSEA = .096(.093 - .099), CFI = .825, TLI = .802,

SRMR = .066). PID-5-SF의 5개 요인들 간의 상관은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 = .725 \sim .987$). 부적응성격요인과 PID-5-SF를 요인으로 하는 2요인 측정모형에서 부적응성격요인과 PID-5-SF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 = .739, p = .000$). 부적응성격요인의 5개 요인들은 해당하는 PID-5-SF의 요인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 = .739 \sim .886$). 표 6에 부적응성격요인의 5요인과 PID-5-SF의 5요인 간의 요인 간 상관을 제시하였다.

표 6. 부적응성격요인의 5요인과 PID-5-SF의 5요인 간의 요인 간 상관

	PID-5-SF				
	애착상실	적대성	탈억제	정신병적경향성	부정정서성
부적응성격요인					
대인회피성	0.886*	0.477*	0.631*	0.627*	0.720*
자기중심성	0.341*	0.739*	0.571*	0.597*	0.412*
조절취약성	0.589*	0.500*	0.759*	0.601*	0.704*
정신증성	0.612*	0.525*	0.689*	0.795*	0.633*
부정정서성	0.784*	0.443*	0.718*	0.612*	0.857*

* : $p < .05$

음영처리 : 부적응성격요인과 PID-5-SF의 대응되는 요인

BDPI의 예측 타당도 검증

임상적 도구로서 BDPI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측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격장애 유무를 평가하는 도구인 SAPAS-SR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BDPI의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 점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BDPI(일반성격, 부적응성격)와 SAPAS-SR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절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반성격 및 부적응성격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적응성격요인의 점수를 고정하였을 때 일반성격요인의 점수가 1점 상승하면 SAPAS-SR의 점수는 -.021 감소하였으며, 일반성격요인의 점수를 고정하였을 때 부적응성격요인 점수가 1점 상승하면 SAPAS-SR의 점수는 .034 증가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01(수정된 $R^2 = .301$)로 나타났다.

인위적으로 연속형 변수인 SAPAS-SR 점수를 이분형 변수로 바꾸게 되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장면에서 SAPAS-SR의 4점을 진단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형 종속변수인 SAPAS-SR 점수를 이분

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BDPI의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 점수가 SAPAS-SR의 진단 결과를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Choi 등(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절단점인 4점을 기준으로 SAPAS-SR 점수를 이분화 하였다. SAPAS-SR 점수가 4점 미만일 경우 0으로, 4점 이상일 경우 1로 변환하였다. 1059명의 연구대상 중 4점 미만인 참여자는 674명(63.6%), 4점 이상인 참여자는 385명(36.4%)이었다. 다중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 점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BDPI(일반성격요인, 부적응성격요인)과 SAPAS-SR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및 교차표이다.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SAPAS-SR의 진단 결과를 예측하였다. 부적응성격요인 점수를 고정하였을 때 일반성격요인 점수가 1점 증가하면 SAPAS-SR이 1이 될 승수는 .967이다. 일반성격요인 점수를 고정하였을 때 부적응성격요인 점수가 1점 증가하면 SAPAS-SR이 1이 될 승수는 1.048이다. 즉 부적응성격요인이 성격장애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54(Nagelkerke $R^2 = .354$)로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 점수가 SAPAS-SR을

표 7. BDPI(일반성격, 부적응성격)와 SAPAS-SR의 다중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절편	.733		1.181	.238
일반성격요인	-.021	-.215	-8.361	.000
부적응성격요인	.034	.493	19.135	.000
R^2	수정된 R^2	F		p-value
.302	.301	228.346		.000

표 8. BDPI(일반성격, 부적응성격)와 SAPAS-SR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b	exp(b)	Wald t	p-value
절편	-2.894	.055	9.520	.002
일반성격요인	-.034	.967	61.353	.000
부적응성격요인	.047	1.048	176.346	.000
Nagelkerke R^2			-2로그우도	
.354			1071.746	
SAPAS-SR(예측)				
		4점 미만	4점 이상	분류 정확도(%)
SAPAS-SR(관측)	4점 미만	569	105	84.4
	4점 이상	165	220	57.1
전체				74.5

35% 이상 설명하고 있으며, SAPAS-SR을 0과 1로 분류하는 정확도는 74.5%였다.

논 의

본 연구는 Lee 등(2019)의 연구에서 타당화된 BDPI가 다른 표본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BDPI를 타당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 조사를 통해 Choi 등(2018)이 개발하고 Lee 등(2019)이 타당화한 한국형 다차원 성격검사(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 BDPI)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내적일관성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BDPI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구성개념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예측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BDPI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여러 논문들이 타당화 과정에서 문항묶음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회귀분석 또는 상관분석 등)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묶음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하위요인별로 문항묶음을 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Little et al., 2013; Matsunaga, 2008).

개인의 성격이 일반 성격특성과 부적응 위험특성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라는 BDPI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 위험특성을 측정하는 부적응성격요인의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을 2요인으로 갖는 2요인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두 요인 간의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요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132$), 이러한 결과는 일반 성격특성과 부적응 위험특성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라는 BDPI의 이론적 가설을 지지한다.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냈으나, 일부 하위요인에서 낮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일부 하위요인에서 나타난 다소 낮은 내적일관성은 각 하위요인에 할당된 적은 문항 수가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일반성격요인의 수용성과 정서안정성, 부적응성격요인의 조절취약성은 다소 낮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해외연구에서 보고된 성격검사의 평균적인 검사-재검사 신뢰도보다 조금 낮은 정도이다. 예를 들면 성격 5요인 이론에 기반한 성격검사인 NEO-P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개 요인에 걸쳐 .75 ~ .83으로 나타났다(Costa & McCrae, 1992). BDPI의 일부 하위요인의 낮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원인일 수 있다. 비교문화 심리학자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개인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격 특질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낮은 일관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English & Chen, 2007; Kanagawa et al., 2001; Kim & Kim, 2015; Triandis,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소 낮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원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BDPI의 이론적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성격요인과 부적응성격요인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문항묶음 수준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일반성격요인은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이 모두 수용할 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부적응성격요인은 SRMR을 제외한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이 다소 좋지 않았다. 따라서 부적응성격요인의 모형 합치도 개선을 위해 부분제약 목표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부적응성격요인의 경험적 모형 합치도 지수들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일반성격요인의 요인 간 상관 및 부적응성격요인의 요인 간 상관은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므로 BDPI의 요인들은 서로 수렴 및 변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준거관련 검사인 간편형 한국어 BFI 및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 (PID-5-SF)을 사용하여 BDPI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일반성격요인과 BFI의 상관관계를 통해 두 검사가 수렴 및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일반성격요인과 BFI의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일반성격요인의 5개 요인들과 BFI의 5개 요인들 간의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정서안정성을 제외한 일반성격요인의 4개 요인들은 해당하는 BFI의 요인들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안정성의 경우 해당하는 BFI의 요인인 신경증이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부적응성격요인은 준거 척도인 PID-5-SF와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성격요인과 PID-5-SF는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부적응성격요인의 5개 요인들은 해당하는 PID-5-SF의 요인들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BDPI의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BDPI를 독립변수, SAPAS-SR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성격요인 및 부적응성격요인 점수는 SAPAS-SR의 점수 변화와 진단 결과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DPI가 임상군 선별 및 평가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BDPI의 신뢰도, 구성개념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여

BDPI가 신뢰롭고 타당한 성격검사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문항묶음을 사용하여 구성개념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개별 문항의 특성과 수행력을 파악하지 못했다(Lee & Kim, 2016). 따라서 검사 자체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수준의 분석이 요구된다. 문항 수준의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문항 복잡성을 가진 문항들이 발견된다면 해당 문항들을 유지, 수정, 또는 제외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BDPI의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타당화 작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BDPI를 임상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BDPI가 SAPAS-SR과의 예측 타당도 검증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일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BDPI의 타당화 연구 결과를 임상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셋째, BDPI 단축형 검사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일반 성격요인의 80문항, 부적응성격요인의 85문항, 총 165문항으로 구성된 BDPI는 일반 성격과 부적응 성격을 동시에 측정하면서도 기존의 성격검사들에 비해 적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65문항은 여전히 다소 많은 문항이며, BDPI를 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적은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short form)을 개발하여 BDPI의 활용도와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Whooley et al., 1997). 또한 단축형 검사를 개발하게 된다면 피검자의 무성의한 반응이나 심리적 불편감 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장면을 비롯한 실제 현장에서 BDPI의 활

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해 요인의 조작적 정의에 기반하여 측정된 점수가 피검자가 속한 모집단과 무관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Meade & Lautenschlager, 2004). 특정 모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모집단의 차이와 명백하게 구분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Horn & McArdle, 1992). 따라서 다양한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된다면 BDP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BDPI는 일반성격특질과 부적응성격특질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내담자의 타고난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성격 적응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임상/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부적응성격특질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이해할 때, 내담자의 일반성격특질 및 내담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사례 개념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학교 등에서는 한 개인의 적응 수준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BDPI는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부적응 성격특질을 동시에 이해하고 개인이 노력하여 적응해야 할 부분과 타고난 기질을 이해함으로써 업무 환경 변화, 동료들과의 관계 변화 등의 개입을 실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BDPI의 임상적 기준의 보완과 단축형 검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상담 현장, 기업 및 학교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Ahn, C. K., & Chae, J. H. (1997).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9*(1), 443-472.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 i-171.
<https://doi.org/10.1037/h009336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revised).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 Asparouhov, T., & Muthén, B. (2009).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3), 397-438.
<https://doi.org/10.1080/10705510903008204>
- Bach, B., Markon, K., Simonsen, E., & Krueger, R. F. (2015). Clinical utility of the DSM-5 alternative model of personality disorders: Six cases from practice.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 21*, 3-25.
<https://doi.org/10.1097/01.pra.0000460618.02805.ef>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6). LEA.
<https://doi.org/10.1080/19312450802458935>
- Browne, M. W. (1972). Oblique rotation to a partially specified target.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25*, 207-212.
<https://doi.org/10.1111/j.2044-8317.1972.tb00492.x>
- Cattell, R. B. (1943).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Basic traits resolved into cluster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38*, 476-506.
<https://doi.org/doi.org/10.1037/h0054116>
- Chatterjee, A., & Hambrick, D. C. (2011). Executive personality, capability cues, and risk taking: How narcissistic CEOs react to their successes and stumbl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6*(2), 202-237.
<https://doi.org/10.1177/0001839211427534>
- Choi, J. S., Hwang, S. J., Bae, D. H., Hwang, S. T., & Kim, Y. L. (2015). Diagnostic Efficiency of Personality Disorder Screening Tool; The Korean version of Self-Report Standardized Assessment of Personality-Abbreviated Scale: Preliminary validation study.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4*(4), 534-541.
<https://doi.org/10.4306/jknpa.2015.54.4.534>
- Choi, K. H., Park, D. J., & Seo, D. G. (2018). *Technical manual for Bright and Dark Personality*

- Inventory (BDPI).*
- Clark, L. A. (2007). Assessment and diagnosis of personality disorder: Perennial issues and an emerging reconceptualiz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227-25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7.102904.190200>
- Cloninger, C. R. (2000). A practical way to diagnosis personality disorder: a proposal.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4*(2), 99-108.
<https://doi.org/10.1521/pedi.2000.14.2.99>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Neo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NEO-PI-R).*
- English, T., & Chen, S. (2007). Culture and self-concept stability: Consistency across and within context among Asi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478-490.
<https://doi.org/10.1037/0022-3514.93.3.478>
- Ferguson, E., Semper, H., Yates, J., Fitzgerald, J. E., Skatova, A., & James, D. (2014). The 'dark side' and 'bright side' of personality: When too much conscientiousness and too little anxiety are detrimental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medical knowledge and skill. *PLoS One, 9*(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88606>
- Gleason, M. E., Weinstein, Y., Balsis, S., & Oltmanns, T. F. (2014). The enduring impact of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s on relationship quality and health in later life. *Journal of Personality, 82*, 493-501.
<https://doi.org/10.1111/jopy.12068>
- Harkness, A. R., & McNulty, J. L. (1994).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PSY-5): Issues from the pages of a diagnostic manual instead of a dictionary. In S. Strack & M. Lorr (Eds.), *Differentiat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pp. 291-315).
- Horn, J. L., & McArdle, J. J. (1992). A practical and theoretical guide to measurement invariance in aging research. *Experimental aging research, 18*(3), 117-144.
<https://doi.org/10.1080/03610739208253916>
- IBM Corp. (2017).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Computer software]. Armonk, NY: IBM Corp.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 Judge, T. A., Heller, D., & Mount, M. K. (2002).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530-541.
<https://doi.org/10.1037/0021-9010.87.3.530>
- Jung, S., Lee, S. M., Lee, Y. S., & Lee, M. S. (2011).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MMPI Scale 2 using full-information item factor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811-830.
<https://doi.org/10.15842/kjcp.2017.36.4.014>
- Kanagawa, C., Cross, S. E., & Markus, H. R. (2001). "Who am I?"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conceptual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90-103.

- <https://doi.org/10.1177/0146167201271008>
- Kim, H. O., & Kim, S. J. (2015). Cultural differences in the stability of self-report measures: A comparison of Korean and German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9*(3), 67-83.
- Kim J. H., Kim, B. H., & Ha, M. S. (2011).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1), 47-65.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10>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rd ed.).
- Krueger, R. F., & Tackett, J. L. (2003).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Working toward the bigger pictur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2), 109-128.
<https://doi.org/10.1521/pedi.17.2.109.23986>
- Krueger, R. F., Derringer, J., Markon, K. E., Watson, D., & Skodol, A. E. (2012). Initial construction of a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 model and inventory for DSM-5. *Psychological Medicine, 42*, 1879-1890.
<https://doi.org/10.1017/S0033291711002674>
- Le, H., Oh, I. S., Robbins, S. B., Ilies, R., Holland, E., & Westrick, P. (2011). Too much of a good thing: Curvilinear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6*(1), 113.
<https://doi.org/10.1037/a0021016>
- Lee, J. H., & Kim, S. Y. (2016). Item parceling: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2), 327-353.
<https://doi.org/10.22257/kjp.2016.06.35.2.327>
- Lee, K. B.,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Multivariatebehavioral research, 39*(2), 329-358.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902_8
- Lee, K. I. (1994). The development Big Five structure in the personality. *Student Guidance Center Busan National University, 29*(1), 39-68.
- Lee, K. I. (1995). *The NEO-PI-R factor structure and maladaptive group profile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Lee, S. J., Han, Y. U., Kim, H. W., Lee, H. J., Park, J. Y., Choi, K. H., Park, D. J., Choi, J. W., Kim, M. K., Seo, D. G.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Inventory in Preliminary Study: Integrating Bright and Dark Sides of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3), 318-334.
<https://doi.org/10.15842/kjcp.2019.38.3.005>
- Lee, S. M., Youn, C. Y., Lee, M. H., & Jung, S. H. (201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How has it chang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17-255.
<https://doi.org/10.22257/kjp.2016.03.35.1.217>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https://doi.org/10.1037/a0033266>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https://doi.org/10.1037/1082-989X.1.2.130>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https://doi.org/10.1080/19312450802458935>
- Maples, J. L., Carter, N. T., Few, L. R., Crego, C., Gore, W. L., Samuel, D. B., Williamson, R. L., Lynam, D. R., Widiger, T. A., Markon, K. E., Krueger R. F., & Miller, J. D. (2015). Testing whether the DSM-5 personality disorder trait model can be measured with a reduced set of items: An item response theory investigation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sychological Assessment*, 27(4), 1195-1210.
<https://doi.org/10.1037/pas0000120>
- McCrae, R. 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 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2), 175-215.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2.tb00970.x>
- Meade, A. W., & Lautenschlager, G. J. (2004). A comparison of item response the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ethodologies for establishing measurement equivalence/invarianc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4), 361-388.
<https://doi.org/10.1177/1094428104268027>
- Min B. M., & Park, D. J. (2000). The five factor personality structure of Korean using NEO-PI-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1), 118-119.
- Morey, L. C. (1988). The categorical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A cluster analysis of DSM-III-R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14-321.
<https://doi.org/10.1037/0021-843X.97.3.314>
- Morey, L. C., Skodol, A. E., & Oldham, J. M. (2014). Clinician judgments of clinical utility: A comparison of DSM-IV-TR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alternative model for DSM-5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3(2), 398.
<https://doi.org/10.1037/a0036481>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Eighth Edition.
- Nestadt, G., Costa Jr, P. T., Hsu, F. C., Samuels, J., Bienvenu, O. J., & Eaton, W. W.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factor model and latent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personality disorder dimensions. *Comprehensive Psychiatry*, 49(1), 98-105.
<https://doi.org/10.1016/j.comppsy.2007.05.015>
- Ng, T. W., Eby, L. T., Sorensen, K. L., & Feldman, D. C. (2005). Predic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A meta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58(2), 367-408.
<https://doi.org/10.1111/j.1744-6570.2005.00515.x>
- Oluf, G. A., & Furnham, A.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bright-and dark-side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206-211.
<https://doi.org/10.1016/j.paid.2015.08.002>
- Piedmont, R. L., Sherman, M. F., Sherman, N. C., Dy-Liacco, G. S., & Williams, J. E. (2009).

- Using the five-factor model to identify a new personality disorder domain: The case for experiential perme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1245-1258.
<https://doi.org/10.1037/a0015368>
- Shin, S. Y., & Hwang, S. T. (201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PID-5).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0*(3), 1-24.
- Smith, M. B., Hill, A. D., Wallace, J. C., Recendes, T., & Judge, T. A. (2018). Upsides to dark and downsides to bright personality: A multidomain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44*(1), 191-217.
<https://doi.org/10.1177/0149206317733511>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rull, T. J., & Durrett, C. A. (2005). Categorical and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355-380.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102803.144009>
- Yoo, T. Y., Lee, K. B.,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3), 61-75.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902_8
- Wales, W. J., Patel, P. C., & Lumpkin, G. T. (2013). In pursuit of greatness: CEO narcissism,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varia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0*(6), 1041-1069.
<https://doi.org/10.1111/joms.12034>
- Westen, D., & Shedler, J. (1999). Revising and assessing Axis II, Part I: Developing a clinically and empirically valid assessment meth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2), 258-272.
- Whooley, M. A., Avins, A. L., Miranda, J., & Browner, W. S. (1997). Case finding instruments for depression: Two questions are as good as many.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2*(7), 439-445.
<https://doi.org/10.1046/j.1525-1497.1997.0076.x>
- Widiger, T. A. (1997). Personality disorders as maladaptive variants of common personality traits: Implications for treatment.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27*(4), 265-282.
- Widiger, T. A., & Simonsen, E. (2005). Alternative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Finding a common groun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 110-130.
<https://doi.org/10.1521/pedi.19.2.110.62628>
- Widiger, T. A., & Trull, T. J. (2007). Plate tectonic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Shifting to a dimens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62*, 71-83.
<https://doi.org/10.1037/0003-066X.62.2.71>
- Zachar, P., Krueger, R. F., & Kendler, K. S. (2016). Personality disorder in DSM-5: An oral history. *Psychological Medicine*, *46*, 1-10.
<https://doi.org/10.1017/S0033291715001543>
- 1차원고접수 : 2020. 03. 03.
2차원고접수 : 2020. 05. 29.
3차원고접수 : 2020. 07. 11.
최종게재결정 : 2020. 07. 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BDPI): Integrating Bright and Dark Sides of Personality

Myeong Gi Kim¹⁾

Sang Jun Lee²⁾

Yeoul Han³⁾

Doo Jin Park²⁾

Kee-Hong Choi³⁾

Dong Gi Seo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²⁾PBCG(Psychology based Consulting Group)

³⁾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right and Dark Personality Inventory (BDPI), which was studied by Lee et al. (2019). Data collected from The total of 1,059 adults was used for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personality factors, which measures general personality traits, and maladaptative personality factors, which measures dysfunctional personality adaptation were low, indicating that general personality and maladaptative personality were independent.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general personality and maladaptative personality were relatively hi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the 5 factor measurement model of general personaltiy factors and maladaptative personality factors, respectively and provided acceptable goodness of fit indices. General personality was properly converged and discriminated with Big Five Inventory (BFI) and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PID-5-SF). Maladaptative personality was overall converged with PID-5-SF, however, it was not discriminated within PID-5 SF sub-factors. The prediction validity was confirmed by regression of BDPI factors on the SAPAS-SR.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escribed.

Key words : BDPI,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Inventory, general personality, maladaptative personality,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부 록

Appendix I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

	특성	빈도	%	전체 (결측)
지역	서울	219	20.7	
	부산	86	8.1	
	대구	60	5.7	
	인천	59	5.6	
	광주	46	4.3	
	대전	48	4.5	
	울산	28	2.6	
	경기도	239	22.6	1059
	강원도	49	4.6	(0)
	충청북도	27	2.5	
	충청남도	31	2.9	
	전라북도	44	4.2	
	전라남도	25	2.4	
	경상북도	45	4.2	
	경상남도	50	4.7	
	세종시	3	0.3	
	서울권	219	20.7	
	경기권(인천 포함)	298	28.1	
	강원권	49	4.6	
	충청권 (세종, 대전 포함)	109	10.3	1059 (0)
전라권(광주 포함)	115	10.9		
경상권(대구, 울산, 부산 포함)	269	25.4		

Appendix II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결혼여부)

	특성	빈도	%	전체 (결측)
결혼여부	미혼	613	57.9	
	기혼	429	40.5	1059
	이혼	16	1.5	(0)
	기타	1	0.1	

Appendix III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연한)

	특성	빈도	%	전체 (결측)	
교육연한	4	1	0.1		
	6	1	0.1		
	9	5	0.5		
	10	2	0.2		
	12	159	15.0		
	13	14	1.3		
	14	125	11.8		
	15	41	3.9		
	16	650	61.4	1059	
	17	5	0.5	(0)	
	18	30	2.8		
	19	6	0.6		
	20	12	1.1		
	21	2	0.2		
	22	1	0.1		
	23	1	0.1		
	24	2	0.2		
	25	2	0.2		
		평균		15.20	
		SD		1.916	

Appendix IV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월 평균 가구소득)

		특성	빈도	%	전체 (결측)
월 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미만	104	9.8	1059 (0)
		200~299만원 미만	181	17.1	
		300~399만원 미만	193	18.2	
		400~499만원 미만	192	18.1	
		500~599만원 미만	138	13	
		600~699만원 미만	76	7.2	
		700~799만원 미만	54	5.1	
		800~899만원 미만	46	4.3	
		900~999만원 미만	21	2.0	
		1000만원 이상	54	5.1	

Appendix V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직업)

		특성	빈도	%	전체 (결측)
직업		사무직	488	46.1	1059 (0)
		기술직	96	9.1	
		서비스직	55	5.2	
		자영업	56	5.3	
		농림어업	2	0.2	
		주부	81	7.6	
		학생	149	14.1	
		무직	73	6.9	
		기타	59	5.6	